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7

“우리도 함께 뛰다”

화순 특공무술체육관

몸도 튼튼 ... 마음도 튼튼 ... '특공' 어린이들의 힘찬 질주

매년 3월1일이 되면 광주 월드컵 경기장 일대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수많은 건강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번 도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난해에도 5km 코스에 출전했던 아이들은 도복을 입고 힘차게 거리를 달리면서 어른들의 박수를 받았다.

런을 넘어 마라톤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대회 참가 의미를 밝혔다.

지구력·인내심키워 완주 다짐

아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건강은 물론 마음도 함께 키울 수 있다. 특히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는 자부심 속에 새 학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봄날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3·1 마라톤의 장점이다. 윤 관장은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3·1절을 맞아 수련생들의 봉사 의지와 희생을 길러주고, 무술의 기분이 되는 지구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회 출전을 결심했다"며 "도장 안에서의 수



화순특공무술체육관 수련생들이 3·1 마라톤에서 새학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질주를 펼치게 된다.

최현혜기자 choi@kwangju.co.kr

라톤에 도전장을 냈다. 가족 모두 검정머리를 보유했 정도로 운동에 적극적인 만큼 이들 가족은 한치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치며 새 봄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함께 무술 수련을 하는 10여명의 형제들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자존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소리꾼' 이채은 양도 5km 출전

이번 대회에는 화순의 명물로 통하는 이채은(12·화순 제일초 4년)양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기 중에는 특공무술을 수련하고 방학이면 소리 공부부를 위해 산에 들어가는

'소리꾼' 이 양은 방송에도 몇 차례 출연한 유명인. 이번에는 마라톤에 도전해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매년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는 특공 어린이들의 마라톤 도전기는 새 봄을 기약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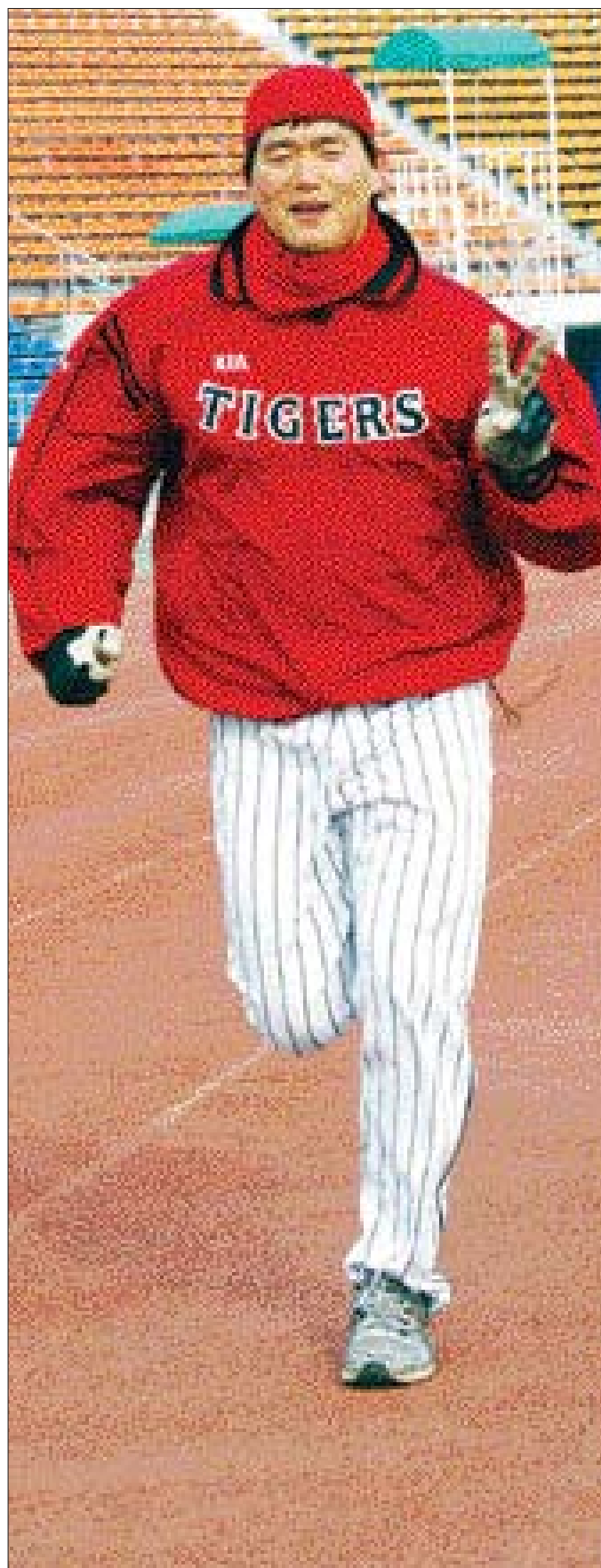
KIA V10 ... 日 미야자키행

이종범·최희섭 등 야수조 오늘 출국

KIA 타이거즈 전지훈련 야수조가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한다.

이날 출국하는 선수단은 김중모 수석 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 5명과 이종범·최희섭·이용규 등 선수 16명으로, 신인은 내야수 안치홍과 손정훈이 합류한다. 미야자키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 캠프를 차리게 되는 야수조는 오는 3월4일까지 체력훈련과 웨이트, 기술 및 전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밤에서 전지훈련 중인 투·포수조가 합류하는 내달 4일부터는 연습경기 및 자체 홈백전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키우게 된다.



전지훈련 출발 하루를 앞둔 22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진행된 체력훈련에서 KIA 최희섭이 승리를 다짐하는 'V'를 그려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야자키 40일 전 훈련 집중리미 속엔?

떡국재료에 윗놀이 기구까지 개인 장비 빼고 무려 2t 이나

KIA타이거즈 야수조의 전지훈련 출발을 하루 앞둔 22일 무등경기장은 안팎으로 분주했다.

광주에서의 마지막 훈련날을 맞은 선수들은 바쁜 걸음으로 무등경기장 축구장 트랙을 돌면서 구슬땀을 흘렸고, 프런트는 40여일의 전지훈련을 책임질 짐꾸러미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전 훈련을 끝내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의 눈길을 끄는 건 무등경기장 야구장 1층 톨로에 쌓여 올려진 노란 박스.

야구공이 가득 담긴 박스가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본 막내 안치홍과 김선빈은 "우리가 운반해야하는 짐"이라며 엄살이다. 톨로 반대쪽에도 의약품·기본 장비 등이 담긴 박스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코칭 스태프가 사용하는 라커 한쪽도 커다란 짐가방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무등경기장 곳곳에 전지훈련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다.

선수들의 개인 장비와 짐을 제외하고도 KIA가 광주에서 미야자키로 공수하는 화물은 2t이 넘는다. 연습경기와 훈련 때 사용할 새 공과 티 베팅 때 쓰는 현 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포수 장비와 방망이 등도 한 집이다.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약품도 빠질 수 없고, 김치도 구단에서 우선 챙기는 집이다.

설날을 타국에서 보내야하는 선수들의 향수를 달래줄 떡국 재료와 윗놀이 기구도 짐대열에 합류해 일본열도로 향하게 된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 프런트 등 29명과 2t이 넘는 짐을 실은 미야자키행 비행기는 23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출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젠 생활체육도 맞춤형시대

광주시생체협 '여성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창준)는 올해 어린이·청소년·여성·노인 등 각 계층에 맞는 맞춤형 생활체육 사업을 전개한다.

시생체협에 따르면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프로그램을 마련, 5개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력교실'은 초등·중학교와 연계, 축구·배드민턴·음악줄넘기 등을 실시한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댄스·볼링·테니스를 통해 건강한 '몸매 가꾸기 프로젝트'를,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단하키펠, '장수체육대학'은 게이트볼·단하키펠·공·레크리에이션 강좌를 마련해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생체협은 '시장기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청소년 클럽대학 생활체육 대회', '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 '어머니 생활체육 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김창준 회장은 "5개구 협의회·종목별 연합회와 협의하여 내실있는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자는 '스포츠클럽 7330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용규 연봉 1억5천만원 "OK"

KIA 66.7% 인상 재계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이용규(사진)가 1년 만에 다시 역대연봉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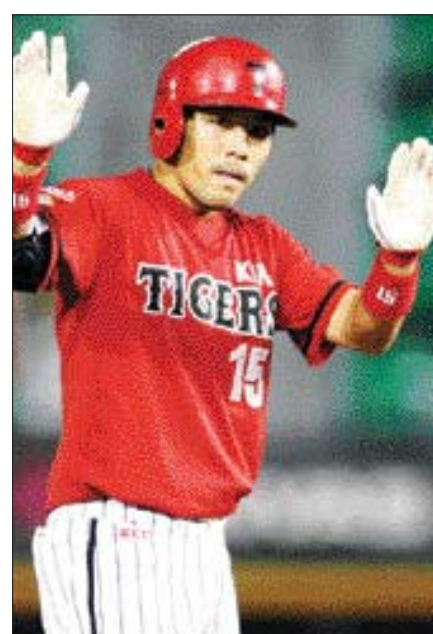
이용규는 22일 9천만원보다 66.7% 인상된 1억5천만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2007년 1억1천만원을 받았던 이용규는 지난 시즌 0.312의 타율과 38타점 28도루의 활약을 내세워 다시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약을 마친 이용규는 "올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팀 성적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또 올 시즌 1안타와 1도루 당 각각 2만원씩을 적립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이용규는 "팬들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선 만큼 그 사랑을 되돌려 주고 싶다.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안타와 도루 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시즌이 끝나면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A는 연봉재계약 대상자 52명 중 50명과 재계약을 마쳐 96.2%의 재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계약자는 김중국과 이현근 2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경쟁자?

ML 출신 알폰소 테스트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에서 댄 에드거도 알폰소(36)를 테스트한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닛칸스포츠'는 22일 인터넷에서 요미우리가 내달 미야자키현 선마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프링캠프 때 알폰소를 데려와 일단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메이저리그에서 12년 통산 홈런 146개를 때리고 1천532안타, 타율 0.284를 남긴 알폰소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주 포지션인 2루수 뿐 아니라 3루수로도 기용할 예정이어서 이승엽에게 가해질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4일 스타트

2009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알리는 시범경기가 3월 중순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2일 발표한 시범경기 일정에 따르면 8개 구단은 3월14일부터 29일까지 팀당 14경기씩 총 56게임을 치른다.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1시이고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하지 않는다.

시범경기에서 겨우내 갖고 닳은 기량을 점검한 각 팀은 닳새를 쉬고 4월4일부터 정규 시즌에 들어간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일정

3월14-15일 = 히어로즈-두산(목동) 삼성-한화(대구) KIA-SK(광주) 롯데-LG

(사직) 3월17-18일 = 히어로즈-LG(목동) 한화-SK(대전) 삼성-두산(대구) 롯데-KIA(사직) 3월19-20일 = SK-LG(문학) 한화-두산(대전) 삼성-KIA(대구) 롯데-히어로즈(사직) 3월21-22일 = 두산-LG(잠실) SK-삼성(문학) 한화-롯데(대전) KIA-히어로즈(광주) 3월24-25일 = 두산-롯데(잠실) SK-히어로즈(문학) 삼성-LG(대구) KIA-한화(광주) 3월26-27일 = LG-한화(잠실) 삼성-히어로즈(대구) KIA-두산(광주) 롯데-SK(사직) 3월28-29일 = LG-KIA(잠실) SK-두산(문학) 한화-히어로즈(대전) 롯데-삼성(사직) 연합뉴스